

사회

무자격자 판치는 광주 도급택시

법인택시회사 전과자·무면허 운전자까지 채용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법규위반 일췌 개선책 시급

광주지역 법인택시회사들이 전과자, 무면허 운전자까지 고용해 도급제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택시 구인난이 심해지면서 법인택시회사들이 전과자 등을 운전자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동 편도 5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A(여·67)씨가 4차선을 달리던 택시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 운전자 김모(25)씨는 택시자격증은 물론 운전면허조차 없는 '무자격 택시 기사'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2005년 면허 취득 이후 수차례 면허가 정지됐으며, 지난 2008년 8월 면허취소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내 오는 2013년까지 5년

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다. 김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이 구간에서 81km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택시회사 영업부장 B씨는 "김씨가 지난 8월 입사해 일하고 있는 김씨의 친구 차량을 가져가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회사가 지난 8월8일 김씨를 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입사 이후 택시자격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미뤘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택시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김씨가 무면허로 택시를 운전하게 된 경우 등을 파악한 뒤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됐다는 것이 택시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운행 중인 법인택시는 76개사 3471대에 이른다. 실질적으로 2인1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6000여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42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인택시회사들은 이 때문에 1인1차량이나 도급제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법인택시가 사실상 개인

승용차로 변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법인택시는 영업종료 후 지정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일부 택시회사에서는 무자격자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인택시회사 관계자는 "운전사를 고용하면서 전과 등을 확인해 제재로 된 인력을 뽑고 싶지만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택시 도급제=법인택시 회사가 공식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택시를 대여해주고 운전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아 운영하는 방식. 무자격 기사의 택시운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우려된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13분 해질 18시 44분 달돋이 02시 02분 달짐 16시 03분

아침안개 주의
대체로 맑고, 오전 한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광주	구름많음	19/27℃
목포	구름많음	20/26℃
여수	구름많음	20/26℃
나주	구름많음	18/28℃
완도	구름많음	19/27℃
구례	구름많음	18/28℃
강진	구름많음	17/28℃
해남	구름많음	17/28℃
장흥	구름많음	17/27℃
순천	구름많음	16/27℃
영광	구름많음	18/27℃
진도	구름많음	18/27℃
전주	구름많음	19/27℃
군산	구름많음	19/25℃
남원	구름많음	17/27℃
홍산도	구름많음	20/24℃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m	경고	높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경고	높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경고	높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경고	높음	높음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20/25	18/25	17/25	17/25	18/26	18/26



강의 듣는 초보 엄마들
영유아 돌봄사 예방 강의를 듣고 있다.

11일 광주시 관공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송현경) 주최로 신청한 한 교회에서 열린 '제1회 부모교육'에 참석한 초보엄마들이 동시대 정금희 교수로부터

/김정수기자 jeans@kwangju.co.kr

추석 이후 태풍 통과 가능성

'산바' 필리핀 마닐라 해상서 북상중

제16호 태풍 '산바'(SANBA)가 추석 연휴(29일~다음달 1일)를 전후해 우리나라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태풍센터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께 필리핀 마닐라 동남동쪽 1530km 해상에서 발생한 산바가 북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산바가 오는 14일 오후 중심기압 975hPa에 최대풍속 34m/s, 강풍반경 320km의 강한 중형 태풍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16일께에는 세력을 키워 일본 오키나와까지 접근한 뒤 계속 북상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국가태풍센터 관계자는 "산바는 발생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가장 높

은 시기에 만들어져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해안을 지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9월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서 물러나는 시기여서 이때 발생한 태풍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북상해 한반도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최근 30년 동안 9월에 발생한 태풍은 연평균 4.9개이고 이 가운데 0.7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추석 직전 태풍 '쿨라피'(KULAPI)가 발생해 우리나라를 향해 북진하다가 추석을 이틀 앞두고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소멸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KTX 역귀성객 승차권 30% 할인

코레일은 11일부터 추석 KTX 역귀성 이용객을 대상으로 승차권을 30% 할인해준다고 밝혔다.

대상 열차는 오는 28~29일 운행되는 상행과 오는 1일 운행되는 하행 KTX 중 96개 열차다. 호남선은 모두 27개 열차가 해당된다.

승차권 구입을 원하는 고객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 접속해 해당 날짜의 할인

대상 열차를 조회해 승차권을 구입하면 된다.

해당기간 광주역에서 용산역까지 KTX를 이용할 경우 홈티켓 할인 2%를 추가하면 정상운임 3만9700원에서 1만2500원이 할인된 2만7200원만 내면 된다.

목표에서 용산역까지는 1만4000원이 할인된 3만7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1조원 가짜석유 판매 일당 검거

1조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의 합동 수사망에 들미를 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은 11일 가짜석유를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조지 총책 서모(39)씨 등 21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통조직단 35명 가운데 나머지 14명을 추적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0월 말부터 원료 3억2000만 원 상당을 사들여 시가 1조 597억원여치의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금관리와 원료 공급, 운송책 등 역할을 분담한 체계적인 유통망을 조직한 다음 유통업인 명의의 석유 원료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폐공장, 고속도로 갓길 등에서 가짜 휘발유 2억2000ℓ와 가짜 경유 1억ℓ 가량을 만들어 전국 길거리 판매업자와 주유소 등에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제조한 3억2000만 원의 가짜석유는 시중에 유통돼 모두 소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초등생 300만명 미만 올해도 5.8%나 줄어

저출산의 여파로 초등학생수가 10년째 감소한 가운데 올해는 5.8%나 줄어 처음으로 3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초등생수는 1980년의 절반 수준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올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각급 학교와 학생, 교원, 시설을 조사한 '2012 교육기본통계'를 11일 발표했다.

세부 통계정보는 이달 중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cesi.kedi.re.kr)에 게재된다. 초등학생수는 295만 1995명이나 줄었다. 이는 1980년(565만8002명)의 절반 수준(52.2%)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전경"

트레일러

대형

1,2종 보통

2종 소형 (오토바이)

트레일러 대 형 1,2종 보통 2종 소형 (오토바이)

휴일에도 접수·교육 합니다.

운전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 깨끗한 환경 >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1,2종 보통

2종 소형 (오토바이)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본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